순창군이 순창읍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6개소 210면을 추가 조성한다.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되면 교통흐름이 좋아지고 고질적인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읍내 어느 공영주차장의 모습.

순창군, 읍내 주차난 해소한다

38억 투자 올해까지 6개소 210면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순창군이 순창읍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6개소 210면을 추가 조성한다.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되면 교통흐름이 좋아지고 고질적인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순창군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결되고 순창군 교통안전정책 심의회도 개최하는 등 행정 절차도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부지매입과 주차장 설치공사만 시행하면 된다.

이번에 공용주차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터미널 주변도로와 중앙도로 주변, 군립도서관 앞 도로, 시장주변, 군청 후문 도로 주변, 순창읍교회부근 옥천로 주변이다.

이 지역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관공서나 상가 등이 밀집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구간이다.

특히 현재 순창읍 자동차 등록대수는 5,017대로 지난 10년 동안 153%가 증가한 반면 공영주차장은 최근 2년 동안 조성한 7개를 포함해도 14개소 789면에 불과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총 38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차장 조성 여론이 꾸준히 제기된 주택?상가 밀집지역을 11개 구역으로 나누고 22개소에 대해 시급성, 지속적인 활용성, 접근의 편리성, 투자대비 효율성, 토지 소유주의 매각의향 등에 주안점을 두고 대상지를 종합 검토해 확정했다.

최대한 필요한 장소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군은 대상지가 확정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상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공사를 서두를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시민불편 제거' 생활 자전거 투어

이환주 남원시장, 골목길 등 돌아보며 민원 처리

이환주 남원시장은 제87회 춘향제를 맞아 다시 찾고 싶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영태 시민소통실장은 24일 오후 10시부터 17시까지 생활민원담당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시청을 출발 시내권 생활현장을 점검하는 자전거 투어를 실시했다.

이 실장은 이날 자전거를 타고 시내권을 돌며 노상 적치물, 광고물 및 불법쓰레기 방치상태 등을 점검해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였다.

또 도로노면상태, 승강장 정비, 기타 시민 불편사항 등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요천 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및 불량 노면을 처리하도록 120민원봉사대에 지시했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불편사항을 제거하기 위해 자전거 투어를 계획했다"며 "시민들이 편안한, 시민들이 만족하는 날까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지속적으로 자전거 투어를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 운암면 호수공원 연분홍색 꽃잔디 만개

임실군 운암면 호수공원 일원에 연분홍색 꽃잔디가 만개해 상춘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호수공원은 지난 2014년 운암면소재지 이주단지 조성 후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도로사면 약 2km구간에 꽃잔디 수만본을 식재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연분홍색 꽃잔디와 옥정호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박현기 면장은 "옥정호 수변도로는 풍광이 아름다워 사진작가와 가족이 찾는 관광명소"라며 "이번 주말에 꽃잔디가 절정에 달하는 만큼 한폭의 그림 같은 경관을 감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옥정호순환도로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려 해매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붕어섬이 한눈에 보이는 국사봉도 산책로도 유명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행정력 집중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 수리시설물 등 보수 · 보강 사업 추진

임실군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인다.

25일 임실군에 따르면 취약한 영농기반을 보강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실읍 현곡지구에 대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관내 169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안정진단을 실시해 위험지수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 중 관촌 방수재에 대한 정비사업을 펼친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대상지인 현곡지구는 수혜면적 20ha로써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몽리면적에 비해 저수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3년 동안 20억원을 투자해 제당보수와 보강작업을 실시하고, 여수토신설과 준설 등을 통해 당초 4.5만톤에서 9.5만톤으로 용수를 확보해,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 방수재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고 있다.

군은 특히 영농에 필요한 수리시설물들에 대한 보강개발사업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방수재 사업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실군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를 높이고, 수시가 필요한 시설물들을 적기에 보수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등 농업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저소득층 대상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순창군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해 대상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국민건강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로 등록한 건강보험 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와 8종의 보장구 구입비, 11종의 호흡보조기 ·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등록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5월, 연휴 여행 감염병 주의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5월 연휴 대비, 국내 및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시민이 증가할 것을 예상되어,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기온이 높아지는 5월에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설사감염병)의 발생도 높아지게 된다. 설사감염병 예방은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손씻기와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음식조리 후에는 신속한 냉장 보관과 상할 수 있는 음식은 나들이 시 가져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 및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야외 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재난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소규모 위험시설지구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이환주 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이 협력하여 국민안전처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설득하면서 이루어진 성과로 남원시 안전예방을 위한 큰 성과이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통하여 추진하게 될 사업은 산동면 부절사정교 정비사업이며, 부절사정교는 1971년 가설된 교량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량이었으나, 교량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과 농기계 통행이 제한되어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여성친화 기업 조성 앞장

임실군과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수미)는 여성일자리창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25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 문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무지개 영농조합법인 외 14개 기업 인사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처 확보 등의 주요안건을 논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문의 288-9700